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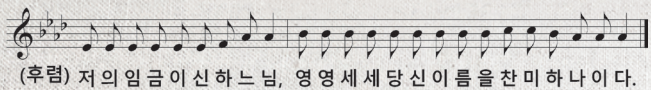
**입 당 송**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 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 9,9-10

**화 답 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후렴) 저의임금이신하느님, 영영세세당신이름을찬미하나이다.

1.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2.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3.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4.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로마서 8,9,11-13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마태오 11,25-30

**영성체 송**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7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성체성사의 삶]**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작품 : 김정순 크리스티나(장산성당 · 부산가톨릭미술인회)





# 철부지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마태 11:25)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지방 유지나, 좀 더 가지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어깨에 힘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이 될 안다고 떠들고 있나?’ 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철부지’들은 누구를 말할겠습니까? 혹자들은 성경의 ‘철부지’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철딱서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원문의 ‘작은 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철부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이’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세속적인 가치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철부지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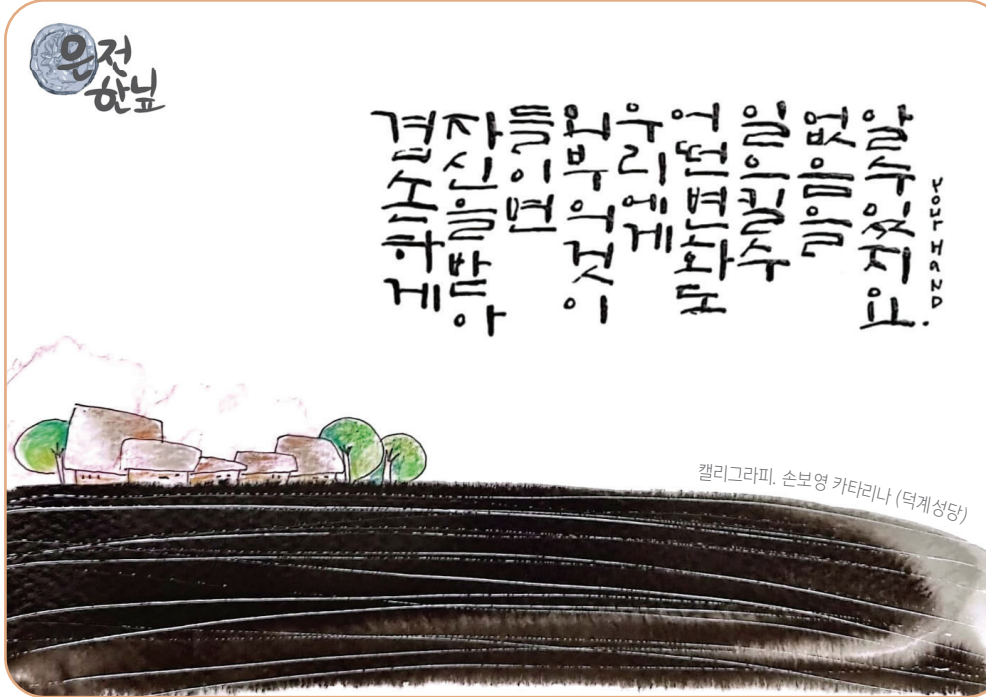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철부지들이기에 우리에게서 희망이 됩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9-30)

철부지들이여, 똑똑하다는 사람들로 부터 조롱과 손가락질 당하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느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기쁘게 지고 갑시다. 아멘.

박재구  
시몬 신부  
성가정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 울산 FM 93.7MHz | 녹산(서부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23:50

7.10(월)~11(화)  
 박재구 신부(성가정성당 주임)

7.12(수)~15(토)  
 인상현 신부(울산장애인복지관장)

cpbc부산 특집 다큐멘터리  
**영도의 실험, 인구소멸의 변곡점을 찾다**

7.12(수) 11:00~12:00  
 구성 : 서가정 베로니카, 연출 : 김은경 루시아

**신부들의 수다**  
 7.15(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나오소>  
 출연 : 서민지 신부(남천성당 보좌)



##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우리의 옛말에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다.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며 잘 키워 놓은 잘난 자식들은 멀리 떠나가서 어버이날은 물론, 명절이 되어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처럼 살아가는 반면,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천덕꾸러기처럼 키운 모자란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족하나마 늘 감사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하며 이 속담을 떠올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를 묵상하면서 이 속담을 생각한다.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지닌 자들은 잘난 자식으로, 철부지들은 못난 자식으로 줄긋기를 해본다.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는 알 수

없도록 감추신 것을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 ‘이것’이 무엇일까. 멀리 떨어져 남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자식이 과연 잘난 자식이었겠는가.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오로지 자식 잘되기만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모진 세월 인내하며 살아오신 내 아버지요 어머니시다.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적이 있는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모님께 도움 청하며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드린 적이 있는가? 부질없는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느님도 부모님도 언제나 내 삶의 앞이 아니라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혼자 잘난 자식이었음을 고백한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자신을 ‘바보’

라고 하셨다. 자신을 스스로 바보라고 낮추신 추기경님의 겸손한 삶의 태도에서 철부지들에게만 드러내 보이시는 ‘이것’을 어렵듯이 알 것도 같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기만 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본다. 결코 이기지도 앞서지도 못하고 옹어지고 절망하며 세상의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비로소 알아간다. 세상의 지혜가 넘쳐날수록 더욱 각박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가는 현실에서 어찌하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철부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세상의 돌부리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사랑을 이미 무수히 받아오지 않았는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들었었다.

■ 최 순 덕 세실리아

안락성당 · 수필가 redrose1956@hanmail.net



### 미사를 거행할 때 초는 몇 개를 놓나요?

미사를 거행할 때 제대 위나 제대 곁에 초를 놓아 두는데, 그 개수에 대해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17항은 “적어도 두 개, 특히 주일이나 의무 축일 미사에서는 네 개나 여섯 개, 또는 교구장 주교가 집전한다면 일곱 개의 촛대에 촛불을 켜 놓는다.”라고 제시합니다.

초의 개수는 전례일의 등급을 가리키며,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는 초를 하나 더 놓아 더욱 성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날 미사에 놓을 초의 개수를 알려면 먼저 전례일의 등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례일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고 순위가 매겨진 전례일은 다시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전례일이 겹치는 경우에 더 높은 순위의 전례일을 거행함으로써 혼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

반 규범』 59항에 나와 있고 이 규범은 『로마 미사 경본』 105-116쪽에 실려 있습니다. 한편,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라는 제목의 별책에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만 따로 실려 있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전례일이 세 등급으로 나뉘므로 미사에 사용하는 초도, 3등급에 속하는 전례일에는 두 개, 2등급에 속하는 전례일에는 네 개, 1등급에 속하는 전례일에는 여섯 개를 놓으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축일은 1등급에 속하고 축일은 2등급에 속하며 기념일과 평일은 3등급에 속합니다. 그러나 ‘1등급은 대축일, 2등급은 축일, 3등급은 기념일 및 평일’이라고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위령의 날은 대축일이 아니지만 1등급에 속하고, 12월 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과 사순 시기 평일은 평일이지만 2등급에 속합니다. ■ 전례위원회

## 희망의 빛

한별(15세, 가명)이는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세 남매의 막내로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사랑받고 자랐던 한별이에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한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는 컴퓨터 수리 일을 그만두고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캠핑 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종 변경 후 사업이 잘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야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별이네 가족은 그런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별이네 가족은 자주 모여서 일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나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던 한별이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이었기에 가족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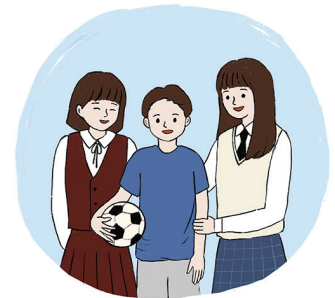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실의에 빠진 어머니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먼저였기에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아 결국에는 자궁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곁을 지켜야 하기에 곧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간과 폐, 뇌에 전이되어 2019년 남편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하늘 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세 남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세 남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부탁해. 고맙고 미안해.”라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이모가 세 남매를 돌보게 되어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축구선수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체육 교사가 되

고 싶다는 새로운 꿈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하고 있기에 한별이도 누나들도 학비와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모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많이 그립고 슬프지만, 한별이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한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누나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신협 131-016-582122

☎ 부산은행 101-2017-0218-01

☎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친교와 말씀의 배”를 맞아 매주 게재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읍시다.



사랑의 편지

(마태 11,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 제30회 해양·수산인의 날



축복식이 있었다. 이어 기념 미사에서 신호철 주교는 “모든 해양가족들은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은총을 느끼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사목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방문해 선원들에게 영적, 물질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해양가족 및 미래 해양인들을 위한 미사, 선원 고충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사목(담당 : 김현 신부, 회장 : 이상일 유대철베드로) 주관으로 ‘제30회 해양·수산인의 날’ 행사가 지난 6월 24일(토) 가톨릭센터에서 해양 수산업 종사자와 가족 그리고 한

국해양대학교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이날 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의 주례로 ‘한국 천주교 해양사목 발상지 및 가톨릭센터 건립 공헌 기념비’

##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수영

6월 17일(토) 순교복자 윤봉문 요셉 성지  
주임 : 송제호 신부, 회장 : 이익성 베드로



두왕성베드로

6월 25일(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한티성지  
주임 : 정태화 신부



수정

6월 25일(일) / 주임 : 김홍민 신부, 회장 : 허정수 다니엘



수정마을

6월 25일(일) / 주임 : 천경훈 신부

## 축복식 축하합니다.

사하성당(주임 : 윤준원 신부, 회장 : 이맹선 가타리나)은 지난 6월 25일(일) 총대리 신호철 주교의 주례로 별관과 성모상 축복식을 거행했다. 2층 규모로 신축된 별관은 1층 카페 겸 쉼터, 2층 수녀원으로 지어졌다.

이 밖에도 최근 명지신도시성당(주임 : 이상을 신부, 회장 : 최병남 세례자요한) 다목적 강당 축복식과 남양산성당(주임 : 김두운 신부, 회장 : 예희경 가타리나) 성모당 축복식이 있었다.



사하



명지신도시



남양산

**대 리 구**

**한국의 100년 성당 사진전**

· 6.30(금)~7.11(화) \*무료관람  
· 무지갤러리(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문의 : (052)201-6505

**본 당**

**가야성당 7월 성령치유대피정**

· 7.11(화) 매일 두번째 화요일 13:00~16:3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출구)  
강사 : 문진화 자매(서울대교구)  
미사, 안수, 고해성사 : 이병주 신부  
준비물 : 개인컵(텀블러) / 문의 : 010-5511-6593

**이기대성당 성요셉성가단 제6회 정기발표회**

· 7.16(일) 17:00 · 이기대성당 성전  
지휘 : 조현수 / 반주 : 유나겸  
단장 : 조숙희 / 문의 : 611-1009

**남천성당 세라핌성가대(교중미사)**

**솔리스트 구함**  
문의 : 010-2978-2662(전례분과장)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 7월 후원회 미사**

부산 : 7.10(월) 11:00 남천성당 소성전  
문의 : 782-0765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 7.10(월) 14: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41-3239(비어회)

**교정사목회 후원회미사**

부산 : 7.11(화) 10:00 서면성당  
울산 : 7월 후원 미사 없음  
문의 : 441-7729

**2023 후보 표지 공모전**

**주제 : 교회와 젊은이**

- 부문 : 사진,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
- 출품수 : 5점 이내  
(출품 시 -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
- 접수마감 : 2023.8.27(일)
- 접수방법 : ①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  
② 이메일 jubo@catb.kr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7.10(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7.11(화) 10:00 아음성당  
부산 : 7.13(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7.10(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안전성 문제  
강사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문의 : 465-9508(미사와 무료강의)

**도시민사목 후원미사**

· 7.10(월) 10:30 · 문현성당 / 문의 : 467-1045  
후원계좌 : 부산 101-2077-2523-00 / 농협 301-0298-1668-41(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도시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남녀 운동화, 의류, 목욕용품 등(택배 및 직배가능)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울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7.12(수) 기도 14:00, 미사 15:00  
· 복산성당 소성전 / 주례 : 이광우 신부  
문의 : (052)201-6505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레미사**

· 7.13(목) 19:30 · 만덕성당 / 주례 : 박상운 신부  
지휘 : 안창섭, 성가 :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문의 : 010-2775-2716

**파티마의세례사도직 7월 파티마의 날**

· 7.13(목) 13:30~15:00 미사  
문의 : 646-3746, 010-6764-3746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7.18(화) 매일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이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도로시의집 무료진료소 봉사자 모집**

대상 :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약사, 물리치료사  
시간 : 주일 14:00~17:00 (월1회 또는 격월 1회)  
문의 : 010-2552-9731가톨릭노동상담소(노동사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물류팀(남) 구함**

자격 : PC기능(한글), 1종보통면허증소지  
서류 : 분당신부님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464-8495~6  
E-mail, woori-pusan@hanmail.net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7.10(월) 10:30~16:00  
- 월요찬양미사·기도회(안수)  
· 7.10(월) 19:30 전포성당  
- 수요 치유미사  
· 7.12(수) 13:00~15:00  
- 금요 밤미사  
· 7.14(금) 20:00~22:30  
- 482차 교구성령묵상회(청소년)  
· 7.21(금) 18:00~23(일) 17:00  
- 483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 7.28(금) 18:00~30(일) 17:00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 목요일미사  
· 7.13(목) 20:00~22:30  
- 100단 묵주기도  
· 7.17(일) 12:00~15:30(미사)

**Senda(센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7.14(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출연 : 주와 / 주제 : 위로  
진행 : 이재석 신부 / 문의 : 809-0642

**ME부산협의회 391차 MB주말**

· 7.21(금) 19:00~23(일) 17:30 · 마리아 피정센터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465-1010, 010-3362-9173  
ME부산홈페이지 <http://bsme.or.kr>

**꾸르실로 참가신청**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35명 선착순)  
440차(자매) : 7.27(목)~30(일)  
441차(형제) : 8.17(목)~20(일)  
문의 :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농아인선교회 7월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

기초반 개강 : 7.19(수) 19:00 주 2회(수,금) 90분  
18회 과정 / 수강료 : 8만원(교재비 별도)  
기초심화반 개강 : 7.19(수) 19:00 주 1회(수) 120분  
10회 과정 / 수강료 : 8만원(교재비 별도)  
중급반 개강 : 7.18(화) 19:00 주 1회(화) 120분  
10회 과정 / 수강료 : 8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7.18(화) 19:00 주 1회(화) 120분  
10회 과정 / 수강료 : 8만원(교재비 별도)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 7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가능.  
문의 : 010-9671-0801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84.7.13.  
김유재 (그레고리오) 신부님



2000.7.14.  
정환국 (알로이시오) 신부님

<p><b>서울공예사</b>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근영(바울라)</p>	<p><b>다사랑재가복지센터</b> 방문요양, 등급신청 대행 1급요양보호사 파견 국비지원(100~85%) 전익추(엘리사벳) <b>010-2830-4646</b></p>	<p><b>오두종성형외과</b>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b>805-0200</b>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b>미래고속관광</b> 7월 국내성지순례(서울/준천교구) 7/15(토)~16(일) 1박 2일(철두산성지, 삼성산성지, 포천순교성지 등 8곳) 잔여 10석 모집 중 우종한(리차드) <b>010-3720-0303</b></p>	<p><b>성신익스프레스</b>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 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김명수(대견안드레아) <b>242-4222, 1522-4324</b></p>
<p><b>친환경방역소독 바이박스</b> 바퀴벌레, 개미, 쥐 해충완전박멸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소독 전문화된 맞춤형 방역시스템 허정희 토마스아쿠나스 <b>010-9689-8119</b></p>	<p><b>김병호정형외과</b> 척추, 관절/통증, 재활/도수치료/물리치료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병호(루카) <b>752-0020</b> 수영구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p>	<p><b>가인방문요양센터</b> 요양보호사 / 교우가족요양 / 등급신청 윤승신(보나) <b>010-4843-3012</b> 김삼주(엘리사벳) <b>010-5752-3541</b> 민병덕(사도요한) <b>010-7448-7858</b></p>	<p><b>뉴비치삼익부동산</b> 매매, 임대 남천동, 해운대, 남구, 수영구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 전익추(엘리사벳) <b>625-0008</b></p>	<p><b>서호재활의학과의원</b> 어깨, 무릎, 척추 통증 비수술적 통증치료 원장 재활의학과전문. 이경석 안드레아 <b>710-3700</b> 지하철1호선 사정역 8번출구 스타벅스부산사정점 10층</p>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 분 / 파견교리(본당) :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 문의 : 519-0490(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교해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7.10(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7.11(화) 10:00 · 이기대성당  
· 7.12(수) 10:00 · 월평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7.13(목) 14:00 · 파티마의세계사도직 2층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이태석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 7.15(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 241-1601

**밀양가르멜수녀원 7월 후원미사**

· 7.18(화) 10:30 (매월 3번째 화요일)  
· 남천성당 / 주례 : 신호철 주교  
문의 : (055)353-6597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 7.22(토) 10:00~17:00 · 부산 분도명상의 집  
준비물 : 성경 / 참가비 : 3만원  
문의 : 010-9996-3361(박사라)

**아이들의집 생활재활교사 구함**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 542-598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 7.20(목)~23(일), 8.3(목)~6(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I : 7.28(금)~30(일)  
성경완독 : 8.11(금)~19(토), 10.13(금)~21(토)  
문의 :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 8.12(토)~13(일), 중1~고2  
· 8.19(토)~20(일), 고3~일반인  
· 대전 정림동 살레시오 수련관  
접수 마감 : 7.30(일) / 문의 : 010-6221-352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심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 7.22~24, 7.28~30(우도), 8.1~3, 8.5~8, 8.11~14(우도), 8.19~21, 8.27~29, 10.1~3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제주성이시돌 피정센터(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여름특별피정(우도자유일정포함)  
7.29~31, 8.4~6, 8.9~12  
자연순례 : 8.26~28, 9.3~5, 9.16~18  
성지순례(추차도) : 9.10~13, 10.15~18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청주교구 성령대회**

· 9.16(토) 09:00~17:30 ·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 김용렬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 팀  
문의 : (043)213-9103, 010-4400-134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 (02)2274-1843, 4, www.cdcc.co.kr

**이나시오 관상기도 청년대침묵피정**

· 8.17(목)~20(일) · 순천예수회영성센터  
대상 : 만 33세 이하 청년남녀(선착순 접수)  
비용 : 일반 21만원, 학생 18만원  
동반 : 예수회성소실 / 문의 : 010-8332-8729, vocation\_sj@gmail.com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회 국악성가캠프**

· 8.25(금)~27(일) / 대상 : 성가대, 일반신자  
· 전주평화의전당(치명자산성지)  
참가비 : 25만원(입금 선착순 200명)  
문의 : 010-2279-0255(국악성가연구회)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회 해외성지순례**

· 9.8(금)~22(금) · 터키-이스라엘  
인솔 : 강수근 신부 / 문의 : 010-2279-0255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대상 : 초5~고2(1년 이상)  
문의 :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운영 해외학교법인

**카타리나 피정의집(개인피정, 자체취사)**

소그룹(15명 내) 전실 대관 가능  
문의 : 010-9715-1203(형성 도미니코수녀회)

**양업고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양업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성, 인성, 영성의 삼위일체 교육을 하는 Quality School입니다.  
양업의 27기 가족 모집 : 홈페이지-입학안내-전형요강 확인 / 원서접수 : 9.4(월)~22(금)  
문의 : (043)260-5076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 센터**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 463-7866  
내방상담 : 월~토 10:00~16:30(동래 명륜역 2번 출구)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토 10:00~16:30 : 청소년 상담 및 일반성인 상담  
조옥진 신부(상담학 박사) : 영성심리상담 및 고해식 상담 -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상담  
운영자 : 김정애 회장,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수도회 성소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7.15(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살레시오회	매월 세번째 일요일	창원 젊음의 집	010-6221-3520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연중 제14주일**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선하고 승고한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자  
**아버지 세미나** | 대상 : 성인 남녀  
■ 일시 : 7월 15일(토) 14:00~16:00  
■ 수강료 : 3만원 ■ 강사 : Fr. 원형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문의 : 519-0492~4 <https://edu.cup.ac.kr>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는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유튜브도 역시 메리놀병원TV  
의료정보, 의료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즐기세요  
대표전화 : 465-880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문의 : 461-2471

가톨릭선업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1982~2032,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40년, 센터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 (사연, 사진 등)을 공유해주세요.  
▶ 접수방법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전화, 우편  
문의 : 462-1870(행정실) [www.bccenter.or.kr](http://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b>성분도치과병원</b> 울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 752-9011,9022 010-2755-9011	<b>김용기내과의원</b> [총무동 구. 감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10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b>독일보청기</b> 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청부지원 보조공성명, 교유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중원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	<b>범무법인 울강</b>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회생, 파산 및 각종법률상담 상담료는 20분에 5만원이나 신자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 부탁드립니다. 717-2570, 010-7455-1031	<b>성모치과</b> 임플란트, 심미보철, 보철문니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2번 출구 80m
<b>길맥흉부외과</b> <하지정맥류 증점클리닉>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클라리베인(모카) 원장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피리얼타워	<b>동래중앙참사랑요양병원</b> 뇌졸중, 혈액 투석,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규리(야베스)	<b>라파엘 해외성지순례</b> 9/13 이스라엘 9일(KE) 9/21 중세수도원 10일/이탈리아 10일(KE) 10/16 나가사키특기119만원/다낭129만원 특기상품-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499만원 동반자 1인 백만원 할인 11/12, 11/26 출발 대표 유재구 요한 (02)778-8565	<b>(주)가나안보청기</b>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부산경남 최대규모 보청기 제조업체 원산지 : 독일 / 청각학 박사 맞춤상담 가능 청각장애인 자원제도 안내/당일생산 즉석수리 김도현(모세) 교우특별우대 010-7674-2828	<b>정대수맑은신경과</b> (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 전 부산대학병원장 치매·뇌졸중 신경과 과장 두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혈압·불면증 남천역 3번출구 612-6100